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정원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 Major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male Nursing Students

Jeong-Won Han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개의 광역시에 소재한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 해당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ANOVA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2.66±0.56점, 전공만족도는 3.78±0.64점, 대학생활적응은 3.15±0.49점으로 나타났으며, 성 고정관념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음의 상관관계를,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 고정관념을 낮추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과과정의 개선을 통해서 간호 전문직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자부심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hat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stereotypes, gender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56 male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Nursing College in two metropolitan c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7 to June 22, 2020 by online survey using an online education program operated by the univers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ANOVA using SPSS 21.0. As a result of the study, male stereotypes scored 2.66±0.56 points for gender stereotypes, 3.78±0.64 points for major satisfaction, and 3.15±0.49 points for college life adaptation, and gender stereotypes were negative for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s a result, in order to ensure that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are satisfied with their majors and enjoy their college life, their values as professional nursing professionals can be improved through a specialized curriculum that aims to reduce gender stereotypes and improve both major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with the goal of nurturing self-esteem. proves major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It is necessary to nurture self-esteem.

Keywords : College Life Adaptation, Gender Stereotype, Major Satisfaction, Male Nursing,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eong-Won Han(Kyungwoon University)

email: gsmdr@naver.com

Received June 30, 2020

Accepted October 5, 2020

Revised July 21, 2020

Published October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래전부터 간호는 여성 중심으로 생각되어진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대부분 간호업무현장에서 간호사는 여성 인력으로 구성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간호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의료서비스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대상자의 요구와 그에 따른 업무가 점차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성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남학생들이 간호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1].

이렇듯 간호전문직에서 남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직업선택에 있어 간호사의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 평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간호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남학생들의 간호학과 입학이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그러나 간호학과에 입학한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 실패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여학생보다 많은데[3] 이는 간호사라는 여성 중심적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등하게 교육하는 방식[4]과 함께 간호현장에서 남자간호사로서 느끼는 고립감과 돌봄이라는 개념이 여성 중심적 성에 강하게 동일시되어 있다는 성 고정관념과 편견, 역할혼돈의 경험 등으로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업 중단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실제로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학생 집단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그들 스스로 여성적 기질과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학교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되었다[6-8].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남자 간호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임상에 나갔을 때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일반적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은 사회의 왜곡된 성 고정관념과 여학생 중심의 간호교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주변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선입견 등에 의해 성 고정관념을 경험하고 있다[5,10-12].

성 고정관념이란 남녀의 성별에 따른 특징이나 가치관 역할에 대한 고정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해당 성별의 대상자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전공만족도를 저하시키기도 한다[13]. 반면에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이처럼 대학생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전공만족도의 저하뿐 아니라, 자신감, 학습동기의 감소와 학업성적 저하 등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5].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6].

전공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로 현재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17].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수업 참여와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18]. 대학생이 현재 자신이 선택한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학습에 대한 흥미상실, 학교에서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대학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한 불안과 신경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 면학분위기 저해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9].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은 대학생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졸업이후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나이가 높은 성취도와 내적동기를 가지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공에 적응을 하게 한다[20]. 또한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면 그들 스스로 전공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간호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여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남자 간호대학생에 관한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갈등과 관련된 대학생활적응[21], 셀프리더십[3], 자아존중감[16,22-23] 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 고정관념과 같은 내재적요인과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남자간호대학생들의 성 고정관념과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이 간호학 분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 고정관념, 전

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의 광역시에 소재한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프로그램을 근거로 효과크기 0.25,유의 수준 0.05, 검정력 0.8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134명으로 나타났으며,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169명으로부터 받았다.

2.3 연구도구

2.3.1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은 Kim[24]이 개발한 성 고정관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가정적 성 고정관념 9문항, 사회적 성 고정관념 3문항, 직업적 외형적 성 고정관념 9문항, 심리적 성 고정관념 7문항, 지적 성 고정관념 5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0 \sim .83$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Ha[17]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도구 중 전공만족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공학문에 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 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높음을 의미한다. Ha[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25]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Lee[26]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학업적 적응 8문항, 사회적 적응 3문항, 정서적 적응 6문항, 신체적 적응 3문항, 대학에 대한 애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2.4 자료수집과 분석

2.4.1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모집단 인 2개 광역지역 소재의 간호대학의 간호학과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본 연구목적에만 사용됨을 밝힌 후 온라인 설문지에 포함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읽고 동의한 경우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총 169부가 제출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1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

2.4.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 3)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분석을 실시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개 종합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의 목적, 방법, 피험자 권리보장 및 설문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No: KW-2020-A-05)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연구목적외로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암호를 걸어 연구자의 개인컴퓨터에 보관하고,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수집된 자료를 보관하고 그 이후 모든 자료는 영구적으로 삭제됨을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총 대상자는 156명으로 나이는 20세 이상 24세 이하 126명(80.8%), 25세 이상 29세 이하 25명(16.0%), 30세 이상 5명(3.2%)이었다. 학년은 1학년 49명(31.4%), 2학년 69명(44.2%), 3학년 29명(18.6%), 4학년 9명(5.8%)이었고 종교는 무교 90명(57.7%), 기독교 23명(14.7%), 불교 22명(14.1%), 천주교 18명(11.5%), 기타 3명(1.9%)이었다. 대상자의 진학 동기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54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이 용이기 때문이 36명(23.1%)으로 많았다. 간호학과 진학에 대한 주위의 반대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없었다가 130명(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과 생활 중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학과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가 82명(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활의 중요성은 학업이 56명(35.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N=156)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Year)	20~24	126(80.8)	24.46±3.17
	25~29	25(16.0)	
	≥30	5(3.2)	
Grade	1	49(31.4)	2.5±1.12

	2	69(44.2)
	3	29(18.6)
	4	9(5.8)
Military service	Yes	78(50.0)
	No	78(50.0)
Religion	Protestant	23(14.7)
	Catholic	18(11.5)
	Buddhist	22(14.1)
	None	90(57.7)
Academic motivation	Other	3(1.9)
	aptitude	16(10.3)
	One's own will	54(34.6)
	Profession	21(13.5)
	Easy employment	36(23.1)
Opposition	Solicitation around	29(18.6)
	No	130(83.3)
	parents	5(3.2)
	father	7(4.5)
	Mother	7(4.5)
	friends	5(3.2)
Difficulties in school life	Relatives	2(1.3)
	Relationship with a female student	28(17.9)
	Department Class	82(52.6)
	Difficulty in practice	16(10.3)
	Surrounding gaze	9(5.8)
Other	21(13.5)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 자아 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의 점수는 1~5점 중 2.66(0.56)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의 점수는 3.78(0.64)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의 점수는 3.15(0.49)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der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N=156)

	M(SD)
Stereotypes	2.66(0.56)
Major satisfaction	3.78(0.64)
College life adaptation	3.15(0.49)

Table 3. Subjective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College life adaptation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yer)	20~24	2.68(0.55)	0.43	.653	3.75(0.63)	1.69	.188	3.18(0.49)	1.16	.317
	25~29	2.56(0.57)			3.82(0.69)			3.01(0.45)		
	≥30	2.65(0.69)			4.28(0.50)			3.17(0.73)		
Grade	1	3.12(0.47)	0.47	.703	3.58(0.68)	3.43	.019	3.12(0.47)	0.47	.703
	2	3.13(0.47)			3.84(0.57)			3.14(0.47)		
	3	3.25(0.50)			3.83(0.64)			3.25(0.50)		
	4	3.13(0.70)			4.22(0.74)			3.13(0.70)		
Military service	Yes	2.74(0.53)	1.79	.075	3.91(0.61)	2.69	.008	3.22(0.51)	1.90	.059
	No	2.58(0.57)			3.64(0.65)			3.08(0.46)		
Religion	Protestant	2.60(0.56)	1.02	.400	3.83(0.58)	0.62	.065	3.09(0.43)	0.51	.728
	Catholic	2.70(0.44)			3.92(0.67)			3.04(0.62)		
	Buddhist	2.56(0.55)			3.73(0.75)			3.14(0.39)		
	None	2.67(0.57)			3.76(0.63)			3.19(0.50)		
	Other	3.21(0.82)			3.35(0.64)			3.29(0.58)		
Academic motivation	Yes	2.72(0.54)	0.98	.330	3.81(0.73)	0.46	.645	3.15(0.54)	-0.03	.973
	No	2.63(0.56)			3.76(0.60)			3.15(0.47)		
Opposition	Yes	2.57(0.55)	-1.80	.074	3.80(0.65)	0.41	.683	3.17(0.52)	0.42	.679
	No	2.73(0.56)			3.76(0.64)			3.14(0.47)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성 고정관념,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성 고정관념은 병역($t=1.79, p=.075$), 여자형제($t=-1.80, p=.07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는 학년($F=3.43, p=.019$), 병역($t=2.69, p=.00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 고정관념은 전공만족도($r=-.142,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활적응($r=-.121, p<.001$)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r=.537,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ender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Variables	Stereotypes	Major satisfaction	College life adaptation
Stereotypes	1		
Major satisfaction	-.142	1	
College life adaptation	-.121	.537**	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서 남자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이 낮았으며,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은 낮고 전공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 고정관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 2.66점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Lee[27]의 연구에서의 2.74점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2.8점[2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여성 중심적이었던 간호직 분야가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가지면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 중 병역을 마치고 복학한 남학생의 경우에 성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Shim[29]의 연구에서 군복무를 한 남성일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아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군복무를 하면서 군대에서 쓰는 언어습관이나 극대화되어있던 남성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군복무를 하고 복학을 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낮추기 위해서는 점차 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응을 하기 위한 대처방법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이 복학을 한 이후의 간호학과내에서의 수업과 활동 및 실습에서 성을 초월하여 진정한 간호학과 학생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전략을 개발이 시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78점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Kim[3]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 평균값인 2.9점 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Jung과 Chae[30]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평균값이 3.9점과 Jang과 Moon[31]의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평균값이 3.8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Kim과 Kim[3]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이론식 수업만 실시하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공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면서 저학년보다 간호학에 대한 전문적인 심화학습을 교육받음으로 인해 점수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공수업과 임상실습을 통해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적인 간호직에 대한 인식만족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15점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3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적응 평균값 2.92점과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Jung과 Chung[33]의 연구에서의 2.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병역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군대를 갔다 온 남학생들은 훨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삶과 진로설계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학습동기가 높아져서[34]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이나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결과로 생각된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성 고정관념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학이 더 이상 여성의 학문이라는 성 고정관념적 편견이 전공만족과 대학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Lee[26]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다른 전공의 남자 대학생보다 성 고정관념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간호학을 선택한 남학생의 경우 다른 전공을 선택한 남학생보다 성 고정관념이 낮으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선택하려는 동기 및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인의 흥미, 적성, 의지에 따라 학과와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과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35]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 중 전공 선택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졌는데 이는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학과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과수업에 참여하거나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의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36-37]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성 고정관념을 낮추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과과정의 개선을 통해서 간호 전문직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자부심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을 선택한 남자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과 남학생들과 달리 성 고정관념과 여학생 중심의 환경과 임상실습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있어 사회적 편견과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

적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38]. 그리고 간호대학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병동실습이나 임상실습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이 여자 환자에게 허용되는 범위가 거의 없으며 심지어 관찰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간호핵심술기의 경우 이들의 성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이나 실습이 여전히 많아 전공만족도 뿐 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낮추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간호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성을 통합하는 개념과 소수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지도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남학생들의 간호학과 적응을 최대한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이 간호학 분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은 낮아졌으며,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증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근거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탐색을 통해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성 고정관념을 낮추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존 여성 중심 간호 직업군에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인지하고 입학한 남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성 고정관념과 만족도, 적응도가 음의 상관성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과 외 프로그램, 상대적으로 산부인과 실습 어려움 등의 개선안 등의 적용을 통한 효과분석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과 대학생활적응 경험에 대하여 대상자의 관점에서 탐색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H. Shin, M. H. Seo, M. I. Lee, "Nursing Jobs and Gender in our age of convergence: Research on Male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3, pp.287-297, March.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3.287>
- [2] E. J. Yoon, H. J. Kwon, H. J. Kim, "Subjec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2, No.3, pp.342-350, Jun. 2012.
DOI: <https://doi.org/10.4040/jkan.2012.42.3.342>
- [3] W. J. Kim, J. K. Kim,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 Major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in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0, pp.133-139,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0.133>
- [4] J. H. Yi, E. Y. Jang, S. M. Lee, "The Predictors of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ursing Students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37, No.2, pp.12-24, December. 2012.
DOI: <https://e-ihis.org/upload/pdf/21400538>
- [5] A. Scott,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ttrition of mal students from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27, No. 4, pp.325-332, 2007.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6.05.013>
- [6] J. H. Kim, M. H. Hwang, J. Y. Ryu, "Gender Roles, Gender Role Conflicts, Career Indecision and Vocational Identity of Korean Male College Students in Male-Dominant Majors and in Female-Dominant Major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 No.1, pp.132-142, 2004.
- [7] D. Y. Lee, S. H. Baek, J. K. Choi, "Education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Vol.3, No.1, pp.25-36, 2013.
- [8] S. J. Choi, "Male Students' Lived Experience in the Female-dominant Nursing College", *Journal of*

- qualitative research*, Vol.4, No.1, pp.52-62, 2003.
- [9] J. H. Lou, R. H. Li, H. Y. Yu, S. H. Chen,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job adjustment and service attitude amongst male nurs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20, pp.864-872, 2011.
- [10] K. O. Park, M. Yu, J. K. Kim, "Experience of Nurses Participating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3, No.1, pp.76-89, January. 2017. DOI: <https://dx.doi.org/10.11111/jkana.2017.23.1.76>
- [11] K. J. Lee, M. Y. Kim,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6, No.1, pp.46-57, January. 2017. DOI: <https://doi.org/10.7475/kjan.2014.26.1.46>
- [12] K. McLaughlin, O. T. Muldoon, M. Moutray, "Gender, gender roles and completion of nursing education: A longitudi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30, No.4, pp.303-307, August. 2010.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9.08.005>
- [13] C. S. Shim, Y. S. Lee, S. H. Oh,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Assault Awareness and Permissible limit in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18, No.2, pp117-125, June. 2012. DOI: <https://doi.org/10.4069/kiwhn.2012.18.2.117>
- [14]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5, No.5, pp.559-566, June. 2013. DOI: <https://doi.org/10.7475/kjan.2013.25.5.559>
- [15] L. Magnussen, M. J. Amunds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xperience," *Nursing and Health Sciences*, Vol.5, No.4, pp.261-267, 2003.
- [16]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873-884, 2014.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4.14.10.87>
- [17]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pp.77-80, 2000.
- [18] M. T. Tessema, K. Ready, and W. W. Yu,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2, No.2, pp.34-44, 2012.
- [19] M. Y. Jang,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38, 2005.
- [20] C. Levesque, A. N. Zuehlke, L. R. Stanek, R. M. Ryan,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6, No.1, pp.68-84, 2004.
- [21] H. O. Jeon, E. Y. Yeom,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4, No. 12, pp.796-807,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796>
- [22] I. S. Park,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Global Health and Nursing*, Vol. 1, No. 2, pp.55-64, 2011.
- [23] M. H. Jeo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170-177, 2006.
- [24] D. I. Kim.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3): Aspect of social psychology, sociology sexual, p.463, Muneumsa, 1999, pp.73-102.
- [25]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No.2, pp.179-189, 1984.
- [26]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Korea, p.30, 1991.
- [27]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40, 2004.
- [28] E. S. An, S. K. Chu,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1, pp-14-21, May. 2011.
- [29] M. H. Shim, Stereotypes toward Gender Roles, Sexism and Attitudes toward Military Service among Korean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8, No.3, pp.365-385, September. 2013. DOI: <https://doi.org/10.18205/kpa.2013.18.3.002>
- [30] H. J. Jung, M. J. Cha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Male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5, pp.105-117, May. 2017.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7.7.5.010>
- [31] T. J. Ja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4, pp.344-352, September. 2016.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4.344>
- [32] G. W. Lee, I. O. Moon, S. K.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4, No.2, pp.15-27, 2013.

- [33] H. J. Jung, H. 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3, pp.188-196, 2012.
- [34] S. Y. Kim, "A Study of Attitudes toward College Life among Male Undergraduate Students Who Completed the Military Servi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2, No.2, pp.127-156, 2016.
DOI: <http://dx.doi.org/10.24159/joec.2016.22.2.127>
- [35] Y. J. Song, G. P. Cho,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Vol.34, No.4, pp.61-77, 2016.
DOI: <http://dx.doi.org/10.22327/kei.2016.34.4.061>
- [36] M. Tessema, K. Ready, C. Malone, "Effect of Gender on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The Case of a Midsized Midwestern Public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Vol.3, No.10, pp.1-11, May. 2012.
- [37] E. Jamelske, "Measuring the impact of a university first-year experience program on student GPA and retention", *Higher Education*, Vol.57 No.3, pp.373-391, March. 2009.
- [38] M. E. Kim, S. H. Go, E. A. Park,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2, pp.223-233, 2014.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4.20.2.223>

한 정 원(Jeong-Won Han)

[정회원]



- 2012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5년 3월 ~ 2016년 8월 : 경남대학교 대우조교수
- 2019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9년 10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외상후 스트레스, 질적연구